

2024년 10월 27일 “(생명의 공동체 11) 이웃사랑의 성취를 위하여”(약 2:8)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세인트 버나드) 자기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 이웃 사랑의 방해 요인: 자기비하

자기 사랑을 방해하는 것 중에 겸손과 혼동되는 자기비하가 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참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복하는 태도이며 용기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려다가 오히려 자기비하로 빠지곤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나쁜 사람 취급하고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들로 자신을 잔인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자기비하는 자아 과대평가의 뒷면일 뿐입니다. 속에 감추어진 것은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인식입니다. 이것의 폐단은, 강점과 약점, 호감 가는 면과 호감 가지 않는 양면을 지닌 보통사람의 온전함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보여주신 것은 최고가 되야만 가치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해야 하고 호감을 주는 사람이어야만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비하를 멈추는 길은, 구원받았으나 타락의 속성이 남아 있고, 타락했지만 구원받고 얻은 은혜의 속성도 회복된 존재로서 양면을 인정하고 이것이 참된 길을 찾는 통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으뜸 가는 계명의 기초

본문에서 ‘ 으뜸간다’는 단어는 왕적 위엄을 지닌다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단어는 (헬) 텔로스, 활이 과녁에 명중되었다는 뜻, 필요한 것들을 수행해서 성공적으로 마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삶의 목표를 이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사랑의 본질적인 측면은 삶의 의미를 살려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나? 왜 사랑해야 하나? 묻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 포로들 중에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은 사람은 생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책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에 실린 한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 한 대학에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60명(학생)에게 왜 죽고 싶었냐고 물었더니, 51명이 ‘삶이 무의미해 보여서’라고 답했고, 놀라운 것은 그 중 47명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적도 좋았고, 가족과 관계도 양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은 ‘나는 삶에 의미를 채울 수 있을까?’ ‘또한 성경을 통해 답을 얻었다면 어떤 모습일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도 자신 또한 소중하시므로 자신의 송고함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당신의 삶의 의미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그를 사랑하는 나 또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자기사랑).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사람의 본분이 아닌 심판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힘을 소진시킵니다.

3 주에 걸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길로서 이웃사랑을 위한 자기사랑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 사랑을 성취하는 축복의 길을 각자 안에서 찾고 서로 격려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나 습성이 있다면 어떤 말과 행동이 그러합니까? 자신을 성찰해보세요.
2.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합니까?